

그로스 마인드셋 갖추기

스타트업에서 일한다는 것은?
'가설 검증'이 왜 필요한가

스타트업?

- 스타트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
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?
- 스타트업이 어떤 조직인지 이해하면, ‘그로스’의 필요성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
- 스타트업은?
 - 에어비앤비, 우버, 비바리퍼블리카(토스), 우아한형제들(배달의민족) 등...
 - 새로운 기술로 혁신적인 사업을 하는 회사?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회사? 자유로운 분위기의 회사?
 - 스타트업의 본질은 무엇?

스타트업?

- “A startup is a **temporary organization** (임시 조직) **designed** to search for (탐색) a **repeatable and scalable business model.**” (사업 모델)
 - Steve Blank의 정의
- 스타트업: 아직 잘 작동하는 사업 모델을 찾아내지 못한 기업
- 사업 모델이 잘 작동한다면 Established company

- 스타트업의 숙명: 사업 모델을 찾기 전까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음
- 그럼 ‘가설 검증’과 스타트업은 무슨 관계?

가설 검증?

- 가설: 어떤 문제나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측, 추측
 - 스타트업이 시장과 고객, 제품 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은 아직 입증되지 않은 ‘가설’
- 가설의 종류:
 - 시장 가설: 시장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
 - 고객 문제 가설: 고객은 어떤 문제를 느끼고 있는지
 - 솔루션 가설: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
 - 채널 가설: 어떤 경로(유통 및 마케팅 채널)로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는지
- 가설은, 창업 팀이 가진 경험이나 직관에 근거한 ‘Educated Guess’

스타트업: 한정된 자원(Runway)

- 제한된 돈
 - 예) 자금 1억 원이 있고,
월급 + 임대료, 서버비 등으로 월 1천만 원을 쓴다면
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10개월
- Runway (활주로)
 - 비행기는 활주로의 끝에 다다르기 전에 이륙해야 함
 - 스타트업은 돈이 떨어지기 전에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함
 - 스타트업 → 한정된 자원 → 한정된 시간
- Runway의 끝에 도달하기 전에 해야 할 일
 - 시장, 고객 등에 대한 가설을 확인하며 고객 확보
 - 매출, 후속 투자 유치 등

스타트업: 한정된 자원(Runway)

- 만약, 스타트업이 ‘하나의 가설’만 믿고, 런웨이 10개월을 그 가설에만 ‘몰빵’한다면?
 - 10개월 내내 제품을 만드는 데 시간을 쓴다면?
 - 운이 좋아서 가설이 맞아떨어지면 해피엔딩
 - 가설이 틀렸다면...
- 스타트업은 빠른 속도로(Lean하게) 가설을 검증해야 함
 - 제품을 개발하는 데 모든 시간을 ‘몰빵’하는 것이 아니라
 - 고객과 문제, 시장, 솔루션에 대한 가설을 검증해야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짐
- 그로스 역시, 끊임없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‘테스트’를 반복하는 것